

2012년 8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

빛은 있다
光はある

아무리 몸부림쳐도
いくら身もだえしても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道が見えないと

길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길에서,
路上にへたりこんでいた、その道で

별처럼 맑은 이슬을 보았다.
星のように清らかな露を見た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暗い谷を過ぎるときでも

길을 달리는 한, 빛은 있다.
道を走る限り、光はある

고난의 순례길, 눈물을 흘리면서도
苦難の巡礼の道、涙を流しながらも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種を植え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

이제 길은 내 뒤에 있다.
これからは道は私の後ろにある

- 신영길의《초원의 바람을 가르다》중에서 -
- シン・ヨンギルの〈草原の風を分ける〉より -

* 아침편지가 낳은 시인,
* 朝の手紙が生んだ詩人

그 시인이 몽골 대초원에서
その詩人がモンゴルの大草原で

빛을 보았습니다. 길을 보았습니다.
光を見ました。道を見ました。

주저앉은 기억 때문에 더 영롱히 피어오르는 빛!
へたりこんだ記憶のため、さらに光かがやいて立ち上る光!

고난의 인생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苦難の人生の道で涙を流しながら種を植える人々の

발걸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생겨난 저 끝없는 길!
歩があってようやくできたあの果てしない道!

길은 언제나 빛을 보는 사람들의
道はいつも光を見る人々の

발걸음 뒤에 있습니다.
歩の後にあります

(2008년 6월 30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6月30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빛

1. [명사] 『물리』光; 光線。

2. [명사] 色; 色彩。

몸부림-치다

1. [자동사] 身もだえする; のたうつ; あがく。

ろ-じょう [路上]

1. [명사] 노상. 길 위. 길바닥.

2. [명사] 가는 도중. 지나가는 길.

주저-앉다

1. [자동사] 座りこむ。

2. [자동사] くずおれる; 崩れるように倒れる。

골짜기

1. [명사] 谷; 谷間; 溪谷。

고난 [苦難]

1. [명사] 苦難; 心身の苦しみ; 難儀。

순례 [巡禮]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巡礼; 信仰のため, 神殿・仏閣・聖地などを参詣して回ること。

영롱 [玲瓏]

1. [명사·하다형 형용사] 玲瓏。

2. [명사·하다형 형용사] 玉などの透きとおって光り輝くさま。

피다1

1. [자동사] 咲く; ほころびる。

2. [자동사] 火がおこる; 燃える。

2012년 8월 14일 보낸 편지입니다.

아, 초원의 별!
あ、草原の星

빛의 세계,
光の世界

초원의 밤하늘에는
草原の夜空には

어둠보다 빛이 더 많다.
闇より光が多い

여느 별보다 별이 더 밝고 더 커 보인다.
通常の星より、星がさらに明るく大きく見える

어디에라도 잠시 기대 밤하늘을 보고 있어보라.
どこでも、しばらく寄りかかって夜空をみてみなさい

자신이 별들속으로 빨려 들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自分が星の中に吸い込まれていって、一瞬にして消えてしまう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神秘のような体験をするだろう。闇が深いほど

별은 밝게 빛난다. 우리 안에 있는 별도 그렇다.
星は明るく輝く。我々の中にある星もそうです

별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려면 다른 불은 꺼야 한다.
星を美しくみようとするなら、他の火は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가까이 있다고 더 밝은 것도 아니다.
近くにあつて、明るいのではない

간절함이 깊을수록 밝게 빛난다.
切実さが深いほど明るく光ります

오직 간절함만으로.
ただ、切実さだけで

- 신영길의《초원의 바람을 가르다》중에서 -
- シン・ヨンギルの〈草原の風を切る〉より -

* 서울의 밤하늘에도 늘 별이 가득할 터입니다.
* ソウルの夜空にもずっと星があふれているはず

다만 사방이 너무 밝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ただ四方がとても明るくて目に見えないだけです

그나마 간절함마저 없으니 별보기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도.
その上切実さすら無いなら、星を見ることがいっそう難しくなるしかないでしょう

그러나 초원은 다릅니다. 밤마다 하늘에서 별이 쏟아집니다.
しかし、草原は違います。夜ごとに空から星があふれます

깜깜한 밤 아무도 벗어나는 이 없는 초원에 서 있어도
真っ黒な夜、誰もともしない人がいない草原に立っていても

전혀 외롭지 않은 것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ぜんぜんさびしくないことは、周りが暗いほど

더 총총히 빛나는 별 때문입니다.
さらにきらきら光る星のせいです

아, 초원의 별!
あ、草原の星!

(2008년 7월 3일자 앙코르 메일)
(2008年7月3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여느

1. [관형사] 通常の; 普通の; なみの; ふだんの。
2. [관형사] その他の; 別の。

빨리다²

1. [타동사] 빨다의使役:吸わせる; (乳を)飲ませる。

들어-가다¹

1. [자동사] 入る。
2. [자동사] 入る; 参加する。

터³

1. [의존명사] 予定の意をあらわす語:積もり; 筈。
2. [의존명사] 「…であるのに, …にもかかわらず」の意を表わす:くせに; …であるのに。

그나마

1. [부사] それさえも; だけでも。
2. [부사] その上にまた; あまつさえ。

마저²

1. [조사] …もまた; …までも; …をも; …さえ; …すら。

벗-하다

1. [타동사·여 불규칙 활용] 友とする。
2. [타동사·여 불규칙 활용] 君·僕の間柄で交際する; おれおまえの仲になる; 気安くなる。

총총-히

1. [부사] きらきらと。

2012년 8월 15일 보낸 편지입니다.

흑자 인생
黒字人生

스스로 자격이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みずから資格があって、優れている考えれば

그 순간부터 공로주의가 되고 맙니다.
その瞬間から、功労主義になってしまいます

나는 당연히 대접 받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私は当然、待遇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しそうでないなら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럴습니다.
不幸だと考えます。夫婦間もそうです。

나는 잘났는데 상대방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私は優れているのに相手側が下だと考える人が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적자 인생입니다.
います。本当にかわいそうな人です。一生赤字人生です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배우자 덕분에 산다.'고
'私は不足な品言だが、配偶者のおかげで生きてる'と

생각해야 흑자 인생입니다.
かんがえて、黒字人生です

- 김석년의《지혜자의 노래》중에서 -
- キム・ソンニョンの〈知恵者の歌〉より -

* 손해를 보는 듯 사는 것이 흑자 인생입니다.
* 損害をこうむるように生きることが黒字人生です

당장은 손해같지만 시간이 가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今は損害のようだが、時間が過ぎれば、福になって戻ってきます

부부나 친구 사이, 또는 직장 상하 관계, 동료 사이에도
夫婦や友達の間、さらに職場の上下関係、同僚のあいだにも

'내가 좀 못났지' 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私がちょっと下だ'とおもって、生きることが知恵です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적어지고
そうすれば、お互い顔を赤くすることも少なくなって

마음엔 평화, 얼굴엔 미소가
心には平和、顔には微笑が

피어오릅니다.
あふれます

(2008년 7월 17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7月17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공로 [功勞]

1. [명사] 功勞; 世のため人のためになる大きな働き; 功; 手柄。[준말] 공(功)

대:접 [待接]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客をあしらいもてなすこと; 接待。

2. [명사·하다형 타동사] 扱い; 取り扱い; 待遇。

잘-나다

1. [형용사] 偉い; 優れている; 秀でている。

2. [형용사] 見目よい; 美しい; きれいだ。

못:-나다

1. [형용사] 愚かだ; 馬鹿だ; 足りない。

2. [형용사] みにくい; 不細工だ; 不出来だ; 不器量だ。

평생 [平生]

1. [명사] 一生。

2. [명사] 一生の間; 生涯。

적자 [赤字]

1. [명사] 赤字。

2. [명사] 欠損。

[2012년 8월 16일 오늘의 아침편지]

원숭이 사냥법
サル狩り方法

인도의 열대림에서는
インドの熱帯林では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
独特な方法でサルを捕まえる

작은 나무 상자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小さい木箱の中にサルが好きな堅果類を

넣은 뒤, 위쪽에 손을 넣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
入れた後、上側に手を入れるくらいの小さな穴を開けておく

그러면 견과를 움켜쥔 원숭이는 구멍에서 손을 빼지 못하고
そうすれば、堅果をわしづかみにしたサルが穴から手を抜くことが出来ず

사냥꾼들에게 잡힌다. 손에 들어온 것은 놓지 않는
狩人に捕まる。手に入れたのは離さない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사냥법인 것이다.
サルの習性を利用した狩りの方法だ

- 장쓰안의《평상심》중에서 -
- 張世安の〈平常心〉より -

* 원숭이를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 サルをあざ笑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우리도 때때로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我々もたまに、同じようなおろかなことを犯します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움켜쥔 채 끝내 손을 펴지 않아
なんでもないことをわしづかみにしたまま、ついに手を開けず

나락으로 구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奈落にころがる場合が本当に多いです

마음의 시선을 조금만 하늘로 높이면
心の視線をちょっとだけ空で高めれば

움켜쥔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わしづかみにした手を開くことが出来ます

(2008년 7월 10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7月10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원:송이

1. [명사] 猿; お猿; ましら。

2. [명사] 人まねの上手な人のたとえ。

사냥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狩り; 狩猟。

열대-림 [熱帶林]

1. [명사] 熱帶林。

상자 [箱子]

1. [명사] 箱; ケース。

견과 [堅果]

1. [명사] 『식물』堅果; クリ・クルミなどの実のように果皮が堅くて種子と密着せず,

熟しても裂けない果実。

어리석다

1. [형용사] 愚かだ; 間抜けだ; ばかだ。

저지르다

1.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犯す; (悪事・失敗などを)仕出かす; やらかす。

움켜-쥐다

1. [타동사] わしづかみにする; ぎゅっと握りしめる。

2. [타동사] しっかりと保つ; 掌握する。

2012년 8월 17일 보낸 편지입니다.

성스러운 진통
聖なる陣痛

출산 진통의 괴로움은
出産陣痛のつらさは

쾌감을 동반하는 불가사의한 괴로움으로,
快感をともなう不可思議なつらさで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뭔가가 있습니다.
苦痛だと一言で規定しにくい何かがあります

통증과 통증 사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痛みと痛みのあいだに喜びがあるという事実を知れば

긍정적으로 진통을 받아들여 아무리 괴로워도
肯定的に陣痛を受け入れていくらつらくても

산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설 수 있습니다.
山をひとつづつ越えていくことが出来ます

- 이케가와 아키라의《아기는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중에서 -
- 池川明<赤ちゃんはお腹の中のことを覚えている>より -

* 출산의 진통,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 出産の陣痛、男性にはよくわかりません

다만 지독한 고통이라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ただひどい苦痛と言うことを推察するだけです

출산이 그렇듯 모든 '창조적 시간'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出産がこのように総ての創造的時間には陣痛が伴います

그러나 그 진통과 진통 사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에
しかしその陣痛と陣痛のあいだに喜びがあるという事実に

힘을 얻고 새로운 창조 작업에 다시금 도전합니다.
力を得て、新しい創造作業にもう一度挑戦します

진통 속에 기쁨이 존재하고, 그 기쁨 가운데
陣痛の中に喜びが存在して、その喜びの中に

새로운 창조와 생명체가 탄생하는 진통,
新しい創造と生命体が誕生する陣痛

아름답고 성스러운 진통입니다.
美しく聖なる陣痛です

(2008년 7월 9일자 앙코르메일)
(2008年7月9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성: -스럽다 [聖-]

1. [형용사·부 불규칙활용] 高潔で厳肅である; 神聖である; 神々しい。
규정1 [規定]

20120817.txt

1. [명사·하다형 타동사] 規定。
 2. [명사·하다형 타동사] あることを規則としてきめること; おきて。
- 통증 [痛症]
1. [명사] ひどく痛む症状; 痛み。

2012년 8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ヘ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
愛の文化、平和の文化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私が望む我が民族の事業は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決して世界を武力で征服したり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経済力で支配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ただ、愛の文化、平和の文化で我々は自らよく生きて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人類全体が仲良くなって、楽しく生きるように

일을 하자는 것이다.
仕事をしようというものだ

- 김구의《나의 소원》중에서 -
- 金九の〈私の願い〉より -

* 우리는 지금
* 我々は今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世界化時代を生きています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는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しかし、過ぎ去った過去に我々は焼けるような胸をつかんで

눈물을 삼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涙をのんだ歴史を持っています。弱肉強食の

국제질서가 판을 치던 각박한 시대에 '사랑의 문화',
国際秩序が横行するせちがらい時代に'愛の文化'

'평화의 문화'를 주창하는 김구선생과 같은 분이
'平和の文化'を主張する金九先生のような方が

존재했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합니다.
存在した事実にあらためて感動しました

그 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この方の願いが、私の願いになる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美しい時間です

사:업 [事業]

1. [명사] 事業。

仲の良い夫婦 → 良い 출처:두산동아
의좋은 부부

가슴

1. [명사] 胸。

2. [명사] 胸部。

쓰리다

1. [형용사] ひりひり痛む; 焼ける。

2. [형용사] とてもひもじい; (腹が)ぺこぺこだ。

부어-잡다

1. [타동사] つかむ; 握りしめる; しっかりつかむ。

삼키다

1. [타동사] 飲み下す; 飲み込む; 飲む。

2. [타동사] 人の物を横取りする; 横領する; 着服する。

悪事が横行する

나쁜 일이 횡행하다[판을 치다]

각박 [刻薄]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薄情なこと; きびしいこと; せちがらいこと; 冷酷。